"숲과 사람의 노래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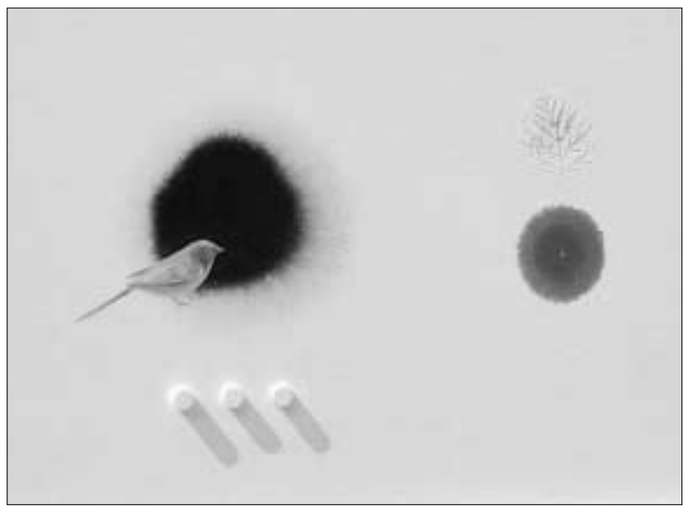
수목원을 노래하는 작가들의 創立展

국립수목원은 1천여 종의 자생식물을 포함한 4천여 종의 식물과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를 비롯한 3천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이들 동식물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다른 종들과 생태적 균형을 이루어 살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은 예술가들에게는 자연 소재로서 작품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어, 많은 작가들이 이곳에 정착해 가고 있다.

수목원에 정착한 작가들이 수목원 작가회를 구성, 광릉숲의 이미지를 새롭게 조망하고 숲과 사람이 공생한다는 테마를 설정해 작품 속에서 관람객들이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길 바라면서 작품을 만들어 숲과 사람의 공생이라는 주제로 창립전을 개최한다.

전시장에는 수목원을 주제로 하여 회화, 판화, 설치, 도자기로 표현한 평면, 입체 등 순수조형 예술작품 40점을 전시하며, 개막행사로 퍼포먼스도 실시할 계획이며, 천년의 숲 광릉숲에 자리잡은 생명과 역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숲과 사람의 노래 전시회에는 수목원 작가회원들의 예술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사진은 정호양 작가의 작품)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特別기고

이해조의 『산천초목』에 나타난 현대적 요소

공 명 수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Ⅰ

동농 이해조가 1912년에 발표한 『산천초목』은 1910년 초반기에 대한민보에 연재한 『박정화』로 알려져 있다. 이점은 최원식 교수의 설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필자는 대한민보에서 이 작품을 발견했다. '신소설 박정화'란 제목으로 1910년 3월 10일부터 5월31일까지 총 62회 걸쳐 연재되었는데, 이해조는 여기서 수문생이란 낯선 필명을 사용하였다. 필자는 1912년 1월 20일 유일서관에서 간행된 작자 미상의 신소설 『산천초목』이 바로 대한민보에 연재된 『박정화』와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아마도 총독부의 검열 때문일 것이다." (『한국근대소설사론』 105) 이해조는 한일합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였던 수도 서울의 풍속을 지켜보면서 이를 한편으로는 풍자하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원각사, 연흥사, 장안사, 단성사 등 극장 번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때로는 지겨운 현실을 잊게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전망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선 이 작품에서 기자 출신답게 당대의 핵심적인 권력층의 집안이었던 희대의 호색가 이시종을 중심으로 한 친일 권력층과 사대부들의 성적 방종이 극에 달한 시대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최원식 교수는 이 당시 당당한 세도가들이었던 친일 권력층의 성적 문란을 지적하면서 이시종은 바로 이와 같은 세태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이완용이 아들 명구의 처 임씨를 품고, 이지용의 처 홍씨와 민영철의 처 유씨 등 친일부인단체를 만들어 통감부의 고관들과 공공연히 놀아났다. 작가는 박참령의 첩과 잠통하는 이시종의 형상을 통해 당시 친일고관 가문에 대한 일반민중의 분노를 대변하였던 것이다."(107) 루까치가 던지는 "소설 속에 왜 타락한 인물이 등장 하는가"라는 질문에 입각하여 이러한 인물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타락한 문제적 인물이 타락한 문제의 사회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적으로 타락한 인물에 의해 자연주의적 요소가 작품의 중심 주제로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논자는 이 작품을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보다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고 싶다. 그 예로 강한 열정에 바탕을 강릉댁의 자아추구와, 작가의 플롯전개를 들 수 있다.『산천초목』은 플롯과 인물의 짜임새가 매우 탄탄하다. 그런데 플롯이 인물을 압도하기보다는, 반대로 인물의 성격이 플롯을 이끌어 가는 측면이 강하다. 자연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부각시키려 하면 플롯과 인물간의 관계에서 우연성이 빈번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도 작가는 인물들이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선택하게 상황설정을 하고 있어 우연적인 측면이 감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작가는 이 작품에서 성애장면을 한 대목도 묘사하지 않고 인물들이 욕망에 대처하는 행위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그려가고 있다. 특히 작가는 이시종에 대해서 초반에 약간 묘사할뿐 대부분 중심인물 강릉댁을 축으로 한 주변인물의 행동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논자는 이 작품을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상황 자체에 관점을 두기 보다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환경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려는 강릉댁의 모더니즘적 자아추구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Ⅱ

여기서 이 소설의 주요 플롯을 자세히 살펴보자. 모 대관의 조카인 이시종은 평소 장안의 기생이라든지 삼패(조선말기 기생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 은군자(몰래 몸을 파는 여자), 얼굴이 반반한 남의 첩들을 누구쟁이(뚜쟁이 노파)를 매수하여 잠통(몰래 간통)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이시종은 경복궁 대궐 앞 황토마루(광화문 동아일보사옥 앞길)를 향하여 내려오던 중 사인교(가마)를 타고 가는 강릉댁을 보고 혼이 빠진 채 자신이 탄 인력거를 보내고 강릉댁의 거처를 직접 알아낸다. 신마마를 통해 강릉댁이 박참령(무관직)의 작은 마누라임이 밝혀지고, 박참령이 이시종과 존장(나이가 16세 이상 많은 어른)이자 이시종의 아버지와 동년배의 아는 사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신마마는 이시종과 강릉댁을 매개하는 누구쟁이로서 앞으로 두 인물의 만남과 이들의 애정행각의 전망에 대해 한층 호기심을 조성시키는 감초역할을 한다. 이시종은 연흥사에서 뽀이를 통해 가비차를 보내어 유혹하고, 강릉댁은 신마마의 감칠맛 나는 첩첩이구(능란한 말솜씨) 언변에 넘어가 구경을 못다 하고 이시종이 기다리는 집으로 신마마를 따라 간다. 집의 방안이 정결히 꾸며져 있고, 이시종이 삼편주(샴페인)를 대접하자, 강릉댁은 이시종에게 빠져든다. 이시종과 강릉댁의 관계는, 암놈 수놈이 멋거리지게 노는 비둘기처럼, 인천에서 딴 살림으로 이어진다. 박참령은 본래 종류재상으로 애색을 매우 찾고 오입도 많이 하고 작첩도 여럿 하였다.

그러나 박참령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강릉댁에게 제 소원대로 다해 주었는데, 강릉댁은 동무 집을 다녀오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에 이시종과 살림을 차린 것이다. 이 단계는 분규의 과정으로서 강릉댁은 풍족하고 순탄한 생활과, 이시종의 애정에 대한 전망 사이에서 고민하다 호색가 이시종과의 사랑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강릉댁의 친정의 곤궁한 상황과, 늙었지만 박참령의 너그러운 마음, 이시종을 향한 강렬한 사랑, 그리고 이시종의 변심 사이에 갈등하는 계기가 된다.

강릉댁의 가출로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강릉댁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과 인물들의 특성이 드러나고, 이는 소설의 갈등을 매개함과 동시에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박참령이 강릉댁을 잊지 못하고, 줄곧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비록 호색가이지만 천성이 착하다는 점과 늙은이로서의 소외감에 따른 불안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둘째, 강릉댁의 친정 부모는 자식의 장래를 아끼는 마음과, 자신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박참령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결국 박참령을 구원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강릉댁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 달포 남짓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인천에서 친정에 이시종을 칭찬하고 박참령을 욕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은 이를 박참령에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박참령은 강릉댁을 다시 불러들인다. 셋째, 친정부모와 박참령의 따뜻한 심성으로 인해, 제1단계의 갈등은 해소가 되나 강릉댁이 이시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음 단계의 갈등을 매개한다. 넷째, 강릉댁은 쥐불어멈과 모의하여 장국에 독을 타서 박참령을 죽이려는 순간 강릉댁의 어미가 나타나 이를 방해하고, 결국 박참령이 좋아하던 애견들이 장국을 먹고 대신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강릉댁이 집터가 세서 그렇다고 기지를 부려 파국은 모면한다. 다섯째, 박참령과 친정어미의 굳은 심성이 파국을 막아보지만, 강릉댁의 이시종을 향한 그리움과, 그것의 여파는 한편으로는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강릉댁은 또 다시 가출을 하여 이시종과 딴 살림을 하나 이시종의 애정이 예전처럼 강렬하지 못하고 식어 있음을 알고, 반대로 박참령에 대한 측은 한 마음이 살아나 박참령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반면, 박참령은 강릉댁이 가출한 사이에 장국 사건의 내막을 알고 강릉댁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는다. 박참령은 본래 마음이 영악치 못한 터라 강릉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하나 뒷방 한 곳에 처소를 정하여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나 가까지 앉아 따뜻한 이야기 한마디 아니하고 지낸다.

Ⅲ

『산천초목』의 중심 플롯에는 이시종과 박참령의 성격, 강릉댁과 친정 부모의 성격과의 상호관계성이 충분하다. 이시종과 박참령은 저마다 오입쟁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면서도, 이시종은 변화무쌍한 기질을 지녔고, 대신 박참령은 따뜻한 애정을 갖추고 있다. 강릉댁과 친정 부모는 당시의 주류사회의 변방에서 주변화 된 인물들이지만 강릉댁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결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정열이 있고, 대신 친정부모는 독립의지는 약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두 부류의 양반사회의 속성, 친일세력과 수구세력 등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천초목』을 크게 두 줄기로 압축시켜 생각해 보면 이 소설은 한편으로는 자연주의의 단초가 될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더니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심인물인 강릉댁이 유교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대처해 가는 과정을 주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시종, 박참령, 자신의 친정 사이에서 강릉댁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비정한 환경적인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전자와 관련되겠지만, 이 소설은 사랑에 충실하려는 강릉댁의 의지에 관점을 두면 모더니즘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주의적 인물이 언제나 환경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반면, 모더니즘적 인물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줄곧 고립되어 수동적으로 머물면서도 자기만의 자아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당당하게 환경에 대응하여 자신의 자아를 모색하는 측면을 보인다. 최원식 교수는 이 소설이 현대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한다: "이해조는 대담한 소설가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춘향이처럼 변사또의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도령과의 약속을 끝내 지켰던 바, 이와 같은 일방적 삼각관계라는 이야기틀은 신소설에서도 완강하게 지켜져 왔다. 그런데 이해조가 이 작품에서 그 완강한 이야기 틀을 처음으로 해체하였던 것이다. ...산문적 생활로부터 해방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 강릉집은 보뵈리 부인이나 안나 까레니나로 발전할 소지를 다분히 갖춘 여인이니, 현대성은 오히려 『박정화』에 두드러진다."(113)

『산천초목』에는 구원자가 없다. 강릉댁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아탐구소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말이 예상을 뛰어 넘는 극적 효과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가령 강릉댁의 투신자살 같은 결단) 예측가능한 종결로 매듭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유교사회의 틀을 완전히 뛰어 넘지 못하는 작가의 한계를 노출한다고 볼 수 있다. 강릉댁이 또 다른 충격적인 행동을 결행하지 못하는 것은 친정 부모를 비롯하여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분명한 자주성 내지 주체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논자는 여기서 이 작품을 모더니즘적 요소로 보는데 어느 정도 주인공의 인식의 한계성도 함께 지적하고자 한다.

韓國의 선비정신 · 7

변절한 자손과 연을 끊은 부인 장씨(張氏)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부인 장씨는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1554년 명종 9~1637년 인조15)의 손녀이다.

장현광은 인동인으로 조선조 중기의 대학자로 학문과 덕행으로 천거되어 보은 현감과 공조정랑으로 잠시 있다가 사임하였는데 그후 군수, 지평, 참의, 대사헌, 판서 지중추부사등 전후 20여차례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 내었다. 미수 허목도 그의 제자이다. 나라의 큰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그때 상소를 올려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였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고 천곡, 송학서원등 전국 여러 서원에 제향되고 문강의 시호가 내려졌다.

부인 장씨는 남인계 명문 안씨 집안으로 출가하였는데 그의 아들 안연석이 지조가 없어 더 높은 벼슬을 탐내어 대대로 지켜온 남인파의 당론을 배반하고 세력을 잡은 파에 붙었고, 그의 손자 복준은 계승하여 더욱 심하므로 남인 선비들이 분개하여 규탄하니 부인 장씨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자손 잘못 가르친 것을 사죄하고 그의 딸이 유씨 가문에 출가하였는데 따님 댁은 아직 남인 계통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곳으로 가서 의탁, 목숨을 마치겠다고 하여 따님 유씨댁으로 떠나려하니 그의 손자 복준이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니 유씨의 가문에 시집간 너의 고모는 아직 남인이니 내가 거기에 가서 의탁하여 목숨을 마치겠다 하였다.

복준이가 간절한 말로 만류하기를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내일을 기다릴 수 없겠습니까 하니 네가 만약 나의 뜻을 어긴다면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을 것이니 사람들은 네가 나를 핍박하여 나를 죽게 하였다고 하지 않겠느냐?

속히 가마를 준비하고 나를 오랫동안 지체케 하지 말라 하였다. 복준이가 부득이 가마를 준비하여 행장을 차려 드렸다. 수십리 길을 가서 비로서 유씨 집에 이르렀는데 밤이 이미 깊었다.

그 때문에 병이 더하였는데 복준이가 들어가 시탕(侍湯)을 청하였느나 부인은 이를 거절하고 내가 네 손에 죽기보다는 내 딸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의 딸에게 복준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 후 모든 손자들을 모아놓고 의리를 지키고 바르게 사는 것이 선비정신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하여 영결하였다.

오늘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면 옛 어른들의 선비정신이 그리워진다. 우리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면 불합리하다고 하다가 같은 일을 내가 하면 합리적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이 하면 비윤리적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괴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이런 풍토가 없어지기를 기대하며 대학자 여헌 장현광의 손녀 부인 장씨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 위대한 할아버지에 청아하고 대쪽같은 그 손녀가 있었다.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경연참가팀 확정

16개 광역시·도 16개팀 876명이 출전
포천종합고등학교 포천메나리 참가

제12회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는 포천종합고등학교의 포천메나리가 제8회 경기도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 1일과 2일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출전종목이 확정됐다.

우리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긴 고유의 전통민속을 보존하고 청소년들에게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KBS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는 16개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16개팀 876명이 출전해 대상인 대통령상을 놓고 열띤 경연을 벌인다.

각 시도별 지역예선을 통과하고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팀과 종목은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하남 동리농악(서울), 부산정보디자인고등학교의 부산농악(부산), 심인고등학교의 공산농요(대구), 간석여자중학교의 은율탈춤(인천), 대촌중학교의 호남우도광산농악 (광주광역시), 새일고등학교의 대전웃다리농악(대전), 울산공업고등학교의 울산농악(울산), 포천종합고등학교의 포천메나리(경기도), 양구고등학교의 양구돌산령지게놀이(강원도),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청주소래울두레놀이(충북), 주산산업고등학교의 만세보령농악 (충남), 덕암정보고등학교의 김제농악(전북), 비금중학교의 뜀뛰기 강강술래(전남), 영천전자고등학교의 영천곳나무 싸움놀이(경북), 효암고등학교의 함안화천농악(경남), 대정여자고등학교의 마라도처녀당전설(제주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악'이 8개로 가장 많고 '민속놀이'가 4개, 민요와 민속극이 각각 2개씩 등이다. 또 영천곳나무 싸움놀이에 가장 많은 100명이 참가하며, 은율탈춤에는 가장 적은 26명이 출연한다. 아울러 이 같은 본 경연 참가종목 외에도 병천고등학교의 병천웃다리풍물 (충남)이 비경쟁 초청시연부분에 참가한다.

한편 10월 2일에서 4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각 지방의 전래민속을 발굴 보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전국 광역시도와 이북 5도를 대표하는 총 26개 팀 1천641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잇달아 열린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초대 漢詩

追慕兪忠穆公(추모유충목공)

崔 宗 圭
포천시민대종제작추진위원장

兪公勇力稟于天(유공용력품우천)
충목공의 용력은 하늘도 아는데

烈義貞忠顯永年(열의정충현영연)
열의와 정충은 오래도록 빛나도다

身後尊稱淸白吏(신후존칭청백리)
사후의 존칭은 청백리라 하였고

生前經歷變難賢(생전경력변난현)
생전의 경력은 변란에도

朱顔誠實愁何在(주안성실수하재)
젊어서 성실했으니 근심이 어찌 있으며

鶴髮愛情熹自然((학발애정희자연)
늙으면 애정과 자연을 즐기게 된다

憂國眞心家事廢(우국진심가사폐)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니 가사는 폐하고

追欽節義設壇全(추흠절의설단전)
절의를 추모하여 설단하고 기리노라

초대 詩

왕방산

이 중 희
마홀문학회 회원

봄이
모퉁이에 온 줄 알고
맞으러 나가니
먼저 와서
나를 기다렸네

봄과 손잡고
산을 오르니
산새는 지저귀고
바람소리 큰데
세상 굽어보니
절도 작았던고

산새에게
외롭지 않느냐? 물으니
티끌 세상 사는
나를 비웃으며 날아가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1)

두문동(杜門洞)과 '퇴은(退隱)'

'충신은 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란 말은 벼슬길의 선비가 지녀야할 지고(至高)의 덕목이다. 즉,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된다.

'두문동(杜門洞)'이라고 하면 고려가 망하자 고려의 충신들이 선비의 도리를 다 하고자 새로 집권한 조선조 태조 이성계에게 협력하지 않고 개성 인근 두문동 마을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은둔생활로 일관하게 되는데 바로 두문동의 어원(語源)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고려 충신 두문동 72인 외에도 조선조 충신 내고향 포천 출신 '양치(楊治)' 선생이 있으니 사육신(死六臣)의 버금가는 생육신(生六臣) 같은 충신이었다.

기지리 두문동이 바로 양치 선생께서 두문불출(杜門不出)하시고 은거(隱居)하시던 곳이다. 호가 퇴은(退隱)이었음도 이를 웅변하고 있다. 양치선생은 청주인으로 고려조의 벽상삼한청국공신 양기(陽起)님의 후손으로 호조판서 천진(天震)의 아들이다. 정종2년(1400년) 태어나 성종14년(1483년)까지 사셨는데 40여년간 기지리 두문동에 은둔 끝에 86세로 깨끗한 지조 높은 생을 마감하셨다.

양치선생께서는 용맹과 지략이 뛰어나 발탁되어 세종조에 김종서 장군이 북방여진족을 물리칠 때 6진 개척의 큰 공을 세우신 분이다. 영광군수 함길, 황해, 병마절도사에 올라 무관 최고의 용맹을 떨치셨으나 김종서 장군 못지 않은 충절의 장군이셨음을 알 수 있다.

수양대군이 충신 김종서를 비롯한 단종을 모시는 세종대왕과 문종의 고명대신을 죽이고, 몰아내고, 세조임금으로 등극하니 충신 양치 선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기지리 두문동에 은둔하여 40여년의 은둔생활을 한 것이었다.

1691년(숙종 17년) 236년 만에 모든 단종조 충신들의 관작이 복권되고 충렬사, 충신각, 조사단 등에 286위가 배향되어 그 님들의 충절을 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 고향 포천의 '양치' 선생들께서도 충목단(사육신 유응부선생의 정문 및 제단)에 함께 배향되었다.

사육신과 생육신에 버금가는 충신이 또 한 분 함께 모셔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기지리 두문동에는 양치선생의 후손들이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님의 뜻을 기리며 살고 있다.

※양치선생 후손이자 퇴은(양치)공파 종친회장 양재창(現 포천향교 전교).

필자연락처 02-932-2434